



보도용 소개 자료 · PRESS KIT

나의 분홍 코끼리

발달장애 대학생 작가 다섯 명이 무료 AI와 함께 만든
수채 그림동화 여덟 권,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온라인 전시관

온라인 전시관 pink.news-paper.co.kr

협성대학교 · AI 활동역량강화 프로그램 | 2026년 7월

언론 문의 이민우 010-2715-1000 · lmw@news-paper.co.kr

프로그램 소개

「AI 활동 역량 강화 — 나의 분홍 코끼리」는 발달장애 대학생 다섯 명이 직접 그린 손그림과 자기 말에서 출발해, 무료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여덟 권의 수채 그림동화를 완성한 8주 창작 과정입니다. 이야기의 뼈도, 살도, 마음도 모두 작가의 것입니다. AI는 곁에서 단어를 건네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주최·장소	협성대학교 웨슬리관
기간	2026년 5월 22일 ~ 7월 10일, 매주 금요일 · 총 8회
참여 작가	발달장애 대학생 5명
사용 도구	무료 생성형 AI (유료 구독 없이 진행)
결과물	수채 그림동화 8권 · 온라인 전시관 · 캐릭터 영상·노래
기획·강의	이민우 · 홍승주

수업이 지킨 세 가지

·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선택은 틀린 게 아니라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 남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코가 커도, 눈이 커도, 그 부분은 그 캐릭터의 개성과 능력이 됩니다.

· 내 말을 끝까지 믿어 줍니다

조금 느려도, 조각조각이어도, 학생의 말이 언제나 먼저 옵니다.

다섯 명의 작가

작가들의 말은 수업에서 직접 남긴 문장 그대로입니다.

박다원 작가

『햄도리와 숲속 친구들』

“햄도리처럼 저도 달리기가 좋아요.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서정빈 작가

『코끼리 가족의 신나는 여행』

“가족이 시원해져서 즐겁게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송지호 작가

『무지개 비눗방울을 만든 엘리펀트』

“아픈 친구가 반짝이는 비눗방울 쇼를 보며 신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홍승우 작가

『왕눈이의 신기한 눈』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큰 눈으로 책을 찾아 새로운 지식을 배웠어요. 정말 기쁘고 뿌듯했어요.”

여휘 작가

『깡총이의 대모험』

“친구들과 힘을 합쳐 방법을 찾아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든 두 권

『분홍 코끼리를 만난 날』(모두의 이야기) — 이 나라의 문을 여는 프레임 동화

『들판을 삼킨 폭풍』(여섯 작가의 친구들) — 여섯 캐릭터가 함께 폭풍을 이겨 내는 스페셜

여덟 권의 동화 (1)



『분홍 코끼리를 만난 날』

모두의 이야기 작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꺼내기 어려웠던 아이가 구멍이 아래 이야기 나라로 떨어져, 분홍 코끼리와 여섯 캐릭터를 만나 처음으로 자기 이



『햄도리와 숲속 친구들』

박다원 작가

숲에서 제일 빠른 햄스터 햄도리. 어느 날 호두가 몽땅 사라지자, 혼자 달리던 발이 친구들을 잇는 발이 됩니다.



『코끼리 가족의 신나는 여행』

서정빈 작가

몸집이 크고 코로 물을 뿜는 아기 코끼리. 가장 더운 날, 그 코가 가족 모두의 분수가 됩니다.



『무지개 비눗방울을 만든 엘리펀트』

송지호 작가

재주 많은 코끼리 엘리펀트의 최고 재주는 무지개 비눗방울. 웃음을 잃은 아픈 친구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반짝이는 쇼가 시작됩니다.

여덟 권의 동화 (2)



『왕눈이의 신기한 눈』

홍승우 작가

무엇이든 크게 볼 수 있는 왕눈이.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원하는 책을 찾아내는 순간, 답답함이 뿌듯함으로 바뀝니다.



『강총이의 대모험』

여취 작가

아주 높이 뛰는 토끼 강총이도 혼자서는 넘지 못한 높은 울타리. 친구들과 힘을 합치자, 하늘까지 열립니다.



『구덩이 아래 나라』

이민우 작가

남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소녀가 이상한 굴에 떨어집니다. 그곳은 소녀가 공책에 그리던 세계, 다섯 친구가 사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들판을 삼킨 폭풍』

여섯 작가의 친구들 작가

어느 날 들판에 커다란 폭풍이 몰려옵니다. 햄도리, 아기 코끼리, 엘리펀트, 왕눈이, 강총이, 공책소녀, 여섯 친구가 저마다의 능력을 이

온라인 전시관

전시관 첫 화면은 여덟 동화의 캐릭터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수채 들판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캐릭터들이 서로 만나 자기 동화의 한 장면을 공연합니다. 방문자는 주인공 아이를 움직여 친구들을 만나고, 별을 모아 밤하늘에 별자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주소 · pink.news-paper.co.kr

관람 포인트 · 살아 움직이는 들판, 여덟 권의 동화 뷰어(읽어주기·글 크게 보기), 놀이터 미니게임

접근성 · 키보드 조작 · 화면 낭독 안내 · 움직임 줄이기 모드 지원

자료 이용 안내

본 자료와 이미지 팩은 보도 목적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각 학생 작가에게 있으며, 크레딧은 「나의 분홍 코끼리」(협성대학교 · AI 활동역량강화 프로그램)로 표기해 주세요. 작가 인터뷰·추가 자료는 담당자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 담당

이민우 · 한국출판학회 홍보 상임이사

010-2715-1000 · lmw@news-paper.co.kr